


보 도 자 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2022. 11. 28. (월) ▪ 총 4쪽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제협력팀 유진 팀장(☎02-3460-5129) 국제협력팀 나주원 전문원(☎02-3460-518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미국범죄학회 KICJ 세션 개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월 16일 제77회 미국범죄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범죄와 형사사법'을 주제로 KICJ 세션 발표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77회 미국범죄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원내 연구자들로 구성된 KICJ 세션을 개최했다.
- 미국범죄학회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범죄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학술회의 중 하나로 이번 제77회 연례학술회의는 미국 아틀랜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하태훈 원장을 비롯하여 6명의 원내 연구자가 참석하여 연구원의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 박성훈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대표 사업인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지원 서비스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범죄유형, 성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심리적 후유증을 꼽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세션에 참석한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한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1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864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성유리 부연구위원과 최지선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하여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자감독 장치를 훼손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재범을 막기 위해 2021년 법무부가 도입한 것으로서 성유리 부연구위원과 최지선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을 평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학회 기간 중 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뉴욕시립대 존제이칼리지(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등과 교류·협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 NIJ의 원장으로 취임한 낸시 라빈(Nancy La Vigne) 박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증거기반 형사정책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국제교류를 다시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양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미국 국립사법연구원은 출소자 재사회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정책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하며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별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미국 국립사법연구원 교류·협력회의 사진

